

<2013년 6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지난날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찾으면서, 이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해 주신다면 10배, 100배 하늘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하늘의 보화가 샘같이 솟아난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구원자를 땅의 사람으로 보냈어도 씹먹어야 된다. 구원자를 씹먹어라. 이 말이 무엇이냐? 그와 대화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간구하라는 말이다. 구원자는 어디에 있는지 구원의 사명을 한다. 그는 성자의 대행자다. 고로 성자가 그 몸을 쓰고 행한다. 성자는 상천하지의 유일신이신 삼위일체 중의 한 분이시다.
3. 구원자는 인간로서는 최고의 권세자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신다. 성자는 그를 자신의 육으로 삼고 자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다.
4. 세상의 심판도 하나님과 성자가 세상에 세운 구원자와 함께 하신다.
5.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 준 자와 항상 일체다.
6. <휴거>되려면, 계속 차원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 육이 세상에서 살 동안 삼위일체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계속 만들기다. 월명동을 계속 만드니 빛이 나듯이, 자기 육을 통해서 자기 혼과 영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만들수록 빛이 난다.
7. 100평짜리 자기 별장을 완성했으면, 그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다 200

평짜리 별장을 짓고 완성하고, 그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다 300평짜리 별장을 짓고 완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육과 혼과 영도 쉬지 말고 계속 만드는 것이다. 자기 영을 휴거의 300선까지 만들고, 또 계속 만들어서 300선을 넘은 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더욱더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더 완전하고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

8. 휴거의 100선을 넘어서 휴거의 영이 된 자가 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만들기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계속 성장하여 10대, 20대, 30대까지 커서 사랑을 이루며 살듯이, 자기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삼위일체를 사랑하면서 자기 혼과 영을 키워야 된다. “이제 나는 휴거됐으니 됐다.” 하지 말라는 것이다. 휴거되는 것만 목적하지 말고, 더 빛나는 영으로 만들어서 300선을 넘기까지 만들기다.

그리고 천국의 자기 집과 정원을 더 큰 것으로 만들기다. 천국의 집은 자기 영이 영원히 살 집이다. 한 채, 일곱 채, 열 채씩 가져라. 그리고 정원도 100평, 1000평, 10000평, 10만 평, 100만 평, 1000만 평, 세상의 한 나라 크기만큼씩 가져라.

천국의 자기 영의 정원이 세상의 한 나라 크기라 하더라도 큰 것이 아니다. 영은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도 순간이면 간다. 그러니 날마다 조깅하듯이 한참 뛰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월명동을 만들 때도 처음에는 “마당만 하면 족하다.” 했다. 사용해 보니 좁았다. 그래서 지금은 4km 멀리까지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도 사용하는 인원수가 많아서 한 사람당 몇 평씩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월명동도 한 사람이 사용하는 면적은 방만 하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몇 명 전도하고 한숨 쉬느냐. 선생은 3만 명 전도

하고 그제야 허리를 폈다. 너희가 제자냐, 신부냐, 남남이냐, 머슴이냐, 형제냐. 일체라면, 그와 같이 행하기다.

9. 천국에 가서 누리려면 힘들어서 천국에 가다가 쓰러진다. 땅에서 희망의 천국을 누리라. 천국은 자기가 만든 만큼 마음·정신·생각과 혼과 영이 느끼고 체휼하고 누리고 받으면서 산다. 영이 받을 것은 육이 죽은 후에 영이 받는다. 영의 것은 영에게, 혼의 것은 혼에게, 육의 것은 육에게 준다. 그러니 땅에서 누릴 것은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라.
10. 행한 대로 받는다. 휴거되지 못해도 구원받으면 지옥에는 안 간다. 하늘 선 편에 가서 거기서 살면 된다.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휴거역사에 살면서 휴거돼야 하지 않겠느냐.)
11. 자기가 휴거됐다는 것은 자기가 안다. 자기 행위로 자기를 확인한다.
12. 결혼한 자들은 ‘육’으로는 ‘내 남편, 내 아내’ 한다. 그러나 ‘영’은 성자를 신랑으로 삼고 영원히 살게 된다. 고로 누구든지 세상에서 살면서 성자의 신부가 되어서 살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육은 죽으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 이는 육계에서 육끼리 맺은 인연이다. 영은 육계와는 다른 체계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고로 육의 삶을 살면서,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13. 영 휴거의 때가 되었으니, 마음먹고 결사적으로 행하면 거의 휴거된다. 그러나 열 가지는 해야 된다. 자기를 가지고 자기가 하니, 쉽다.
하나님과 성자가 인정하도록 분체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와 일체되어 살기다. / 분체를 알고 자기 죄를 100% 회개하기다. 곧 전능하신 성자께 그의 육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 조건을 세우고 올라오기다. / 특히 이성 범죄에 관한 것을 100% 고하고 회개하여 조건을 세우고 올라와야 된다. / 시대 말씀을 100% 믿고 행하기다. /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된 사랑의 삶을 살기다. / 삼위의 창조 목적을 알고 행하기다.

이것을 행하기는 쉽다. 휴거되면 자기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할 일을 조금 하고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큰일이냐.

14. <휴거>는 반드시 ‘차원’을 따지고 계산하고, 알고 깨닫고서 이뤄야 된다.
15. <천국>도 ‘차원의 세계’이며, <지상>도 ‘차원의 세계’다. (각자 사는 차원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
16. 온 바다의 새우들 중에서 최고로 큰 새우와, 고래들 중에서 최고로 큰 고래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휴거되어 얻는 차원과, 성장하고 큰 자가 휴거되어 얻는 차원이 다르다.
17. 열 살이 안 된 남녀가 사랑하고 사랑의 보람을 느끼는 차원이 다르고, 열 살이 넘은 남녀가 사랑하고 사랑해 주며 사랑의 보람을 느끼는 차원이 다르고, 20대, 30대까지 육신이 발육되고 정신 연령이 성장한 남녀가 사랑하고 사랑해 주며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차원이 다르다. / <휴거>도 자기가 성장하여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대로 차원을 높여서 살고, 보람을 느끼며 살고, 그에 맞게 천국을 얻고 살게 된다. 차원 높은 자가 많이 얻고, 많이 느끼고, 많은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 차원이 낮은 자는 못 느낀다.

18. 사랑으로만 타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거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을 온전히 했으면 사랑 휴거에서 100점이다. 거기에서 각종 과목대로 갖추면, 더 차원 높은 휴거를 이루고, 그 차원에 해당되는 천국을 얻게 된다.
19. 주와 같이 일체 되어 행하고 그 급으로 살면, 그 ‘육’이 땅에서도 주와 같은 주관권 세계에서 교통하며 살고, 그 ‘영’이 천국에서도 같은 차원 주관권 세계에서 살게 된다. 나머지 영들은 두 번째 주관권, 세 번째 주관권... 등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산다. 또 나무 나이테같이 옆으로 나선형으로 차원마다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된다. 핵심 주관권과 그 외의 주관권의 빛과 환경의 차이는 금 - 은 - 동 - 철같이 나뉘어 있다.
20. 시대 말씀을 배웠어도 깨달아야 전심을 다해 외치게 되고, 그런 자가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21. 시대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100번 외치기보다, 깨닫고 한 번을 제대로 외쳐라.
22. 날마다 별미 요리를 해서 먹고 살듯이 ‘말씀 듣고 행하기, 기도하기, 찬양하기, 관리하기, 말씀 외치기’ 등 신앙의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자기 생활을 새롭게 하여라.